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영화 '색, 계'는 개봉 당시 수위높은 노출로 세간의 관심을 불러모았지만, 정사신 하나만으로 회자되기에 너무나도 가까운 걸작이다. 대만의 거장 이안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욕망과 사랑의 경계, 집단에 속해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양면성과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중국 역사 일각까지 한꺼번에 다루고자 한다.

용히 흐르며 극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작곡가 브람스 역시 스승의 아내였던 클라라를 평생 사모하여 자신의 마음을 감춘 채, 그것을 듣지 않기 위해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살아온 작곡가가 아니었을까? 브람스의 인터메조는 인생의 최후기에 작곡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브람스의 피아노 곡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브람스는 말년에 대작의 작곡을 피하고 주로 소품들만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짧은 멜로디 안에 인간의 삶과 사랑에 대한 수없는 감정들을 가득 담아놓았다. 특히 말년 피아노 곡들은 구체적인 멜로디를 갖지 않고, 감정을 자유롭게 흐르면서 미묘한 감정과 그 깊이를 고스란히 청자들에게 전달해준다.

“기본에 충실하라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라”

광주일보 선배 문인들에게 듣는 '신춘문에 투고 요령'

신춘문에는 한겨울에 읽는 '열병'과 같다. 이 열병은 꿈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며, 겨울이 지나도 쉽게 낫지 않는 불치병이다. 또 심대 소년과 칠순의 늦깎이 문학도가 함께 읽는 지병이다. 전국의 수많은 예비문인들은 초겨울이 되면 밤을 새워가며 써내려간 원고를 들여다보며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성부 김옥애 이미란 김준태

선배 작가들은 '기본에 충실하라'고 입을 모았다. 심사위원들의 눈은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신춘문에용 작품'은 없고, 문학본연의 기본을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인으로서 참신한 발상과 문체를 요구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꾸준히 탐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인 김준태(1969년 시)씨는 시를 다루는 진지한 태도를 강조했다. 김 시인은 "나의 고민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겨냥해야 한다"면서 "모국어와 같고 닮은 것은 작가의 사명이며, 문제의식을 갖고 모든 사물을 직시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춘문에는 곧 새로운 방식의 작품"이라는 공식도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꼭 신춘문이라고 해서 신랄할 필요는 없고, '누구나 보고 느끼는 것'을 주제와 소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선배 문인들은 원고 마감에 다가올수록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설가 이미란(1983년 소설)씨는 "원고를 수정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고 있는가 등 문장으로서의 기본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말의 반복이나 불필요한 단어·의미가 겹치면 산만해진다"면서 "글이 잘 풀리지 않으면, (소설의)시점에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라"고 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화자가 어린 '옥희'였기 때문에 이 소설이 진부한 연애사의 범주에서 벗어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유형하는 문체를 따라하면, 누구누구의 아류가 될 뿐"이라면서 "신춘문에는 새로운 작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

재가 새롭거나 실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각과 서사 방식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낙선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김옥애(1975년 동화)씨는 "동화는 어른의 감정에 도취되면 안 되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낙선작도 나중에 훌륭한 작품으로 탈고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글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80매 안팎·상금 300만원), 시(3~5면·100만원), 동화(30매 안팎·100만원) 부문을 공모하고 마감은 오는 15일(소인 유효)이다. 문의 062-220-064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색, 계' 중 브람스 '인터메조 op.118 제2번'

삶과 사랑, 그 위태로운 경계선

이. 그러나 만남과 재회를 통해 둘은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사랑에 빠지고 만다. 결국 왕치아즈는 조직의 암살 시도를 이에게 알리게 되고 극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사실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영화에서 담고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요약하기 곤란할 정도로 크고 깊다.

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다. 백건우는 최근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브람스 말년의 피아노 소품들을 모아 발매했는데, 연주를 들어보면 그가 유럽에서 받고 있는 명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타건, 건반을 어루만지는 듯 하다기도 감정이 함부로 흐르지 않도록 음표 사이를 꼭 잡아가는 손놀림. 백건우의 브람스는 묵직하면서도 파스하다.

가슴에 사무치게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지만 외칠 수 없는 순간의 슬픔,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만 눈을 감아야 하고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삶과 비정함. 이 위태로운 간극을 메우던 브람스의 '인터메조 제2번'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삶의 또다른 이면을 노래한다.

<독립영화감독·음악감독리스트>



피아니스트 구재항씨와 바이올리니스트 박다연씨는 지난 2004년 결성된 피아노 4중주단 '무지크 바움'을 통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 두 사람이 다양한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꿈꾸며 'The Dream'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한 게 지난 2008년이었고 첫번째 작곡가는 모차르트였다.

두번째 시리즈로 시작했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두차례 연주회를 진행했던 두 사람은 오는 13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연주를 끝으로 베토벤의 로의 여행을 마무리한다.

베토벤으로의 마지막 클래식 여행

박다연·구재항 듀오 리사이틀, 내일 금호아트홀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 47' 일명 '크로이처 소나타'다. 또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인 '소나타 10번 G장조'와 두 곡의 로망스도 함께 연주한다.

서울대를 거쳐 신시내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구씨는 현재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양대·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출신인 박씨는 광주시립교향악단원으로 활동중이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62-650-1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을 타고 흐르는 명품 선율 윤소희 첼로 독주회, 오늘 금호아트홀

윤소희 첼로 독주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윤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첼리스트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흐의 '첼로 모음곡 3번 C장조', 쇼스타코비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

단조 작품 40'을 들려준다. 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로 완성한 프랑크의 '소나타 A단조'를 첼로곡으로 선사한다. 전남대와 라이프리히 국립음대,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윤씨는 현재 라헨악4중주단, 모다무르, 스텔피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중이며 전남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임리라씨.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구청, 중·고생 위한 '내고장 문화유산' 운영

광주 광산구청은 지역 중·고등학생을 위한 '내 고장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를 운영한다. '교육문화공동체 결'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12일부터 23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이야기가 있는 인문학 캠프 ▲지역문화 바로알기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참가하면 된다.

'이야기가 있는 인문학 캠프'는 광산구의 의로운 인물과 역사적 사건 그리고 예술사를 중심으로 인문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어등산 한말 의병 전적지, 윤상원 열사 생가 등을 탐방하고, 월봉서원에서 인문학 강화를 듣는다.

'지역문화 바로알기'는 광산의 문화를 직접 찾아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960-8539.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2012년도 제20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제출서류, 전형방법, 원서교부 및 접수, 문의할 곳.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광주광역시 지정 교육기관 : 광주-2008-제001호. 2011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신규자반, 자격자반.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